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우석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다. 1997년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특수교육학 전공),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문화재학 전공)을 수료했다. 제14·17·18대 중앙종회의원, 동여수노인복지관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여수 향일암 주지, 구례 사성암 주지, 화엄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리산에서 시대를 묻다, 문화로 마음을 밝히다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홍매화 축제'에는 지난해 30만명이 찾았고, '모기장 음악회'와 '화엄문화축제', '캠플스테이'가 SNS를 뜨겁게 달궜다. 덕분에 화엄사 홈페이지의 연간 접속자 수는 지난해 1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화엄사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출가자 감소, 신도 고령화, 탈종교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교구본사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화엄사는 '문화'를 화두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기도와 수행을 본분으로 삼되, 문화적 가치 창출을 통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취임 7개월을 맞은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화엄사는 더 이상 닫힌 종교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머물며 치유받을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불교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화엄사가 그리는 미래와 교구본사 운영의 방향을 듣기 위해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가 1월 13일 주지 우석 스님을 만났다.

Q 취임 7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들려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움이 큽니다. 부주지로 4년을 지내고, 그 이전까지 합하면 14년 동안 화엄사에서 여러 행사와 기획을 해 왔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지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보니 '그때 왜 이것까지 챙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은 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아쉬움이 저를 더 신중하게 만들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게 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느낀 부족함을 보완해 소홀함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화엄사의 방향을 다듬어 가고자 합니다.

Q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화엄사의 정체성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화엄사의 문제를 화엄사 내부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곧 조계종, 더 나아가 한국불교 전체가 시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교구본사로서 신도가 늘고 줄고의 문제에만 매달린다면 시야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주지로 있는 동안 화엄사 신도가 조금 늘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한국불교 전체의 해답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 종교인구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불교가 어떤 성장 동력을 갖고 현대사회와 소통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늘 염두에 둡니다. 불교의 본질은 지키되, 전법과 포교의 방식은 시대의 언어와 감수성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불교가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Q 화엄사는 '문화도량'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화엄사만의 색깔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불교 전체가 문화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문화는 시대와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화엄사라는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종교적 신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곳을 '쉼터'로 느끼고, 불교가 주는 위안과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참선을 억지로 권하지 않아도, 공간 자체가 불교의 가치를 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자등명(自燈明)', 내년은 '법등명(法燈明)', 그다음 해는 '심등명(心燈明)'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는 빛에서 시작해, 법을 의지하는 삶의 지표로 나아가고, 마침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 흐름에 맞춰 모든 문화행사와 공간 기획을 연동해 나갈 생각입니다.

Q 취임법회에서 '기도수행을 본분으로 한 도량,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와 수행은 화엄사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위에 문화라는 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화엄사는 종교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고, 동시에 한 인간의 삶을 치유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법당은 법당대로 존엄하게 유지하되, 마당과 전각, 숲길과 야간 풍경까지 모두가 불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엄이 되도록 가꾸는 것입니다.

문화는 결과적으로 수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강요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 경험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교가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탈종교화 속 교구본사 운영 전략 재구성

기도·수행 중심 두고 문화가치 창출 확산

자등명·법등명·심등명 3개년 로드맵 구상

문화유산 활용…국민 치유공간 자리매김

청년·청소년 포교–유연한 출가 종책 모색

말사 지원·지역 연대 강화하는 교구운영

Q '홍매화 사진대회', '모기장 음악회', '화엄문화제', '캠플스테이'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포교의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를 포교와 신행으로 어떻게 연결할 계획이신가요?

이제 화엄사는 '문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화 속에 불교의 핵심 가치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입니다. 종교적 언어로 기도와 참선을 설명하는 방식은 현대인에게 쉽지 않습니다. 대신 화엄사 공간에 들어왔을 때 '불교가 소중하다', '이곳이 나에게 위안이 된다'는 감정이 먼저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매달 정기적인 기획을 이어 갈 계획입니다. 불교의 명절과 의례는 충실히 이어 가면서, 나머지는 문화행사로 채워 균형을 맞출 생각입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재해석과 활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문화로, 문화는 다시 문화유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Q 야간개방과 '화야몽'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처음 야간 경관조명을 논의할 때 '나이트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화야몽'입니다. 밤의 화엄사는 낮과 전혀 다른 감동을 줍니다.

보제루는 과거에는 설법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토크 콘서트와 전시가 열리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공간에서 사회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계기로 화엄사상을 재조명했습니다. 오늘날 의상화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화엄사상의 핵심은 결국 중생 구제입니다. 화엄이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교의 정체성'입니다. 중생의 아픔과 번뇌를 함께 짊어지고 덜어 주려는 마음, 이것이 화엄사가 지켜야 할 본질입니다.

경전과 문헌 속에만 머무는 사상이 아니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고 오늘의 문화와 접목해야 합니다. 어렵고 낯선 용어는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화엄사는 살아 있는 역사 공간이어야 합니다.

Q 화엄사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구상도 궁금합니다.

문화유산 보존은 기본이고 그다음은 활용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머물며 감동을 느끼고, 추억을 쌓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신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이곳에서의 경험이 불교에 대한 감사와 보호의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 유산을 온전히 전하는 길입니다.

Q 청소년 · 청년 포교와 출가자 감소 문제에 대한 스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출가자 감소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출가 연령 제한 해제, 외국인 승려 수용 등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청소년·청년 포교 역시 '출가를 위한 포교'에만 목적을 둘 수는 없습니다. 캠플스테이는 자연과 아웃도어 문화를 접목한 시도였습니다. 불교를 경험할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선택은 각자의 인연에 맡겨야 합니다.

Q 말사와의 소통·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사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사는 구조를 만들고, 말사는 각자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직영체제 운영, 성공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말사 주지 스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Q 호남지역 교구본사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대상자는 불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종교인까지 포용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화엄사는 이미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간 자체를 공원처럼 개방해, 누구나 쉬어 갈 수 있는 추억의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불자와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화엄사는 종교 이전에, 선조들이 남긴 지혜와 염원이 깃든 공간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머물고, 즐기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 조언이나 바람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 행복한 기억이 쌓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화엄사 사부대중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석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이사가 대담 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화엄사는 지난해 5월 해동화엄초조 의상 스님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매년 봄 열리는 '홍매화 사진대회'는 화엄사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화엄사는 지역 대학 불교동아리 창립과 지원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부대 불교동아리 창립법회 모습.



국보인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은 3년간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5일 다시 법의 등불을 밝혔다.